이안의 Media In Buddha ❸ 임신한 나무와 도깨비



▶한줄요약
〈임신한 나무와 도깨비〉는 다큐멘터리이면서 드라마, 호러, 복수 판타지 등 복합 장르적 영화이다. 의정부 기지촌 위안부인 박인순과 그의 동료들인 여러 꽃분이들의 영가에 대한 천도재와도 같은 수작이다.

국가폭력 스러진 영가, 정토에 이르러면

글을 쓸 수가 없었다. 모든 빚이 다 그렇듯 글빚도 무거운 것이고, 약속한 날에는 보내야 하는 것인데 정토와는 거리가 먼 생지옥을 막지 못한 세상의 어른이라는 참담함과 자괴감 앞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빌어 무슨 영상과 미디어를 보고 무슨 글을 쓸 것인가?

아름다운 영화를 향기로운 말씀으로 전하려고 몇 편의 영화를 골라 놓고 아프고 무거운 영화를 뒤로 물려놓은 참이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앳된 젊은이들이었다. 몇 겹으로 포개져 서로의 몸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젊은이들을 하나라도 더 벗어나게 하기 위해 소방관, 경찰, 거기 있던 사람들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영상은 너무도 비현실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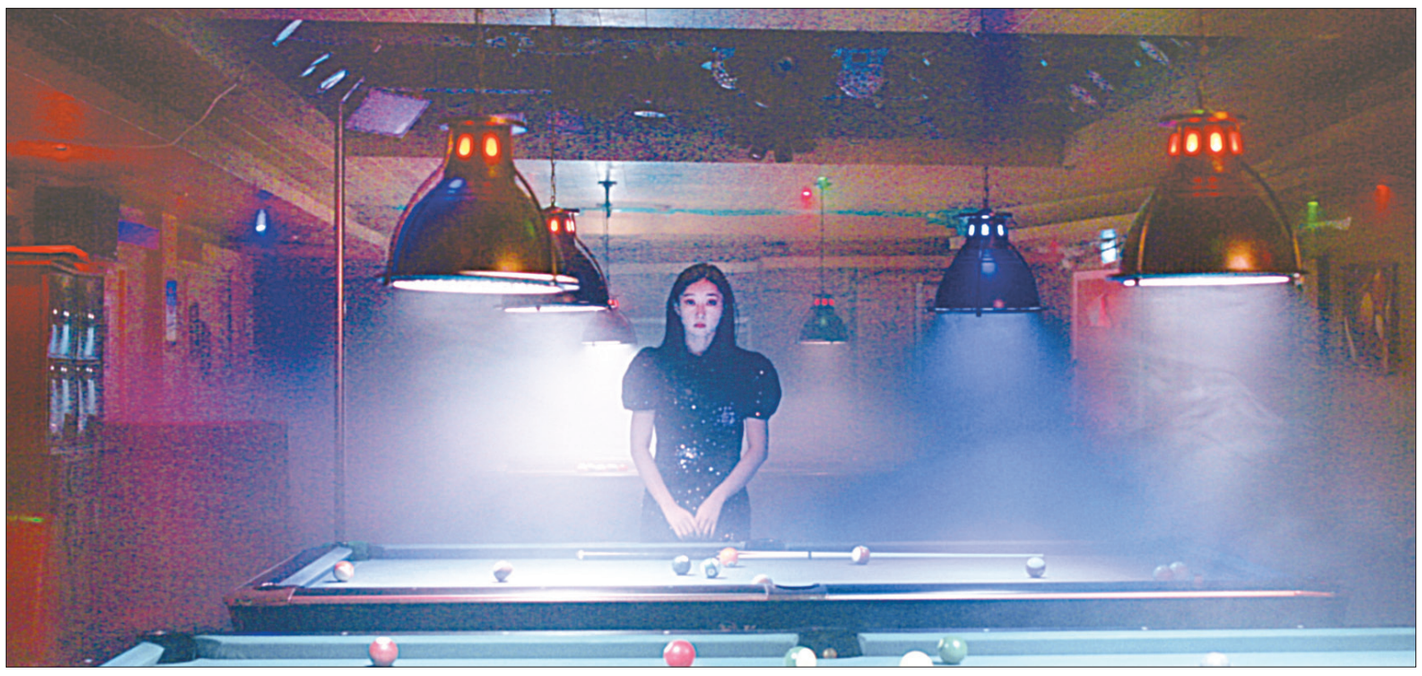
뉴스에서는 사망자가 2명이라고 했다. 부상자가 많아 더 늘어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외국에 있는 서울시장이 급히 돌아오고 있다고 했다. 소름이 오소소 돋았다. 숨이 막혔다. 참사가 벌어졌구나. 좁은 골목 길바닥에 누워있는 청년들과 그들에게 숨이 돌아오게 하려는 사람들의 다급한 몸짓은 희생자가 2명에서 그치지 않으리라는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

뉴스보다 빠르게 SNS와 유튜브에 현장 상황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한때 바로 그곳에 살았던 가족이 밤늦도록 집에 돌아오지 않자 겁이 덜컥 났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어 자정이 넘은 시간인데도 전화를 걸었다. 무사히 다른 곳에 있다는 걸 확인하고부터 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지? 대통령 집무실 바로 옆 동네에서 비명을 지르는 젊은이들, 정신을 잃고 쓰러진 젊은이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는 젊은이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 나라가 있기는 한 걸까?

청소년들이 정규 학사 일정인 수학여행을 가다 죽어도 교통사고라 하고, 청년들이 해마다 늘 열리는 축제에 갔다가 죽은 게 놀러 가서 당한 사고니 본인 탓이라고 하는 사회. 아무도 책임이 없다고 하고, 아무도 사과를 하지 않는 나라. 그러면서 국가애도기간이니 원인을 따지지도 말고 책임을 묻지도 말라며 윽박지르는 나라에서 모든 것은 인과 연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니 나도 책임이 있는 것인데, 어떤 참혹함도 자비심으로 돌아보라는 부처님 말씀을 도대체 저 아차들 앞에서 무슨 영화 이야기로 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넋 놓고 있는데 알림이 울렸다. 이태원 사고에 따른 국가애도기간이 선포되었기에 10월 30일로 예정됐던 〈임신한 나무와 도깨비〉 공연을 취소한다는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온 전갈이었다. '세계 시청각 유산의 날'을 기념해서 영상자료원이 특별히 기획한 영화와 음악, 낭독이 어우러지는 이 융복합 공연은 며칠 전 먼저 한 차례 있었고, 미리 그 공연을 보았었다.

영상자료원에서는 가끔 융복합 공연을 선보이곤 했다. 〈청춘의 십자로〉(1934년, 안종화 감독)나 〈이국정원〉(1958년, 전창근 감독) 같이 뒤늦게 발굴되어 손상도 심하고 사운드가 망실된 작품들의 영상을 복원해서 비어있는 사운드를 라이브 연주와 더빙으로 채우는 여러 장르가 함께 하는 융복합 공연이 필요한 경우였다.



〈임신한 나무와 도깨비〉의 한 장면.

사진제공=(주)시네마 달

그런데 2019년 작품인 〈임신한 나무와 도깨비〉는 무성 시대 복원 작품도 아닌 최근 작품으로 여러 영화제에서 극찬을 받으며 상영되고 있는데 굳이 왜 융복합 방식으로 공연을 하는지 의문이 들었다. 그래서 첫 회 공연을 미리 봤고, 그때 보지 못했으면 영영 보지 못했을 그 이야기가 이번 글의 인연이라 여겨져서 쓰려고 준비했던 글감들을 거두고 이 선문답 같은 제목의 영화 이야기를 힘들고 어렵게 전하고자 한다.

이 영화는 기록도 기억도 미치지 못하고, 재현도 표현도 담지 못하는, 이야기 되지 못한 이야기를 엮어, 이승과 저승, 현실과 환상, 과거와 현재의 경계를 넘나드는 기이하고, 슬프고, 처참하고, 아름다운 살아있는 사람 박인순과 그의 동료들인 여러 꽃분이들의 영가에 대한 천도재와도 같은 영화다.

2019년 제24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처음 관객을 만났을 때는 다큐멘터리로 분류됐으나 국내외 여러 영화제에서 초청을 받는 일이 쌓이면서 드라마, 호러, 미스터리, 스릴러, 복수 판타지를 가로지르며 모든 경계를 무너뜨리는 독특함 때문에 이제는 '오드 판타지'라는 새로운 장르로 소개되고 있다.

오랫동안 미군부대 자리였던 의정부시 뺏벌이라는 공간으로부터 시작하는 〈임신한 나무와 도깨비〉는 기지촌이라는 사라져 가는 공간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왔던 김동령 감독과 박경태 감독이 공동 연출한 첫 영화 〈거미의 땅〉(2012) 이후 6년 만에 다시 함께 작업해 2019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한국 영화의 새로운 발견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서울독립영화제에서 집행위원회특별상을 받기도 했고 극장 개봉에 이어 OTT 상영도 되고 있다.

> 의정부 뺏벌 기지촌 위안부 조명
> 다큐+드라마 등 복합 장르 秀作
> 이름 없이 잊혀진 사람들 추모해
> 참된 애도, 책임과 처벌 동반한다

그런데 영화 아카이빙을 책임지는 한국영상자료원이 굳이 이 영화를 '세계 시청각 유산'에 걸맞는 융복합 작품으로 무대에 올린 까닭은 더 발견할 것이 있고, 더 공감할 것이 있고, 더 해야 할 이야기가 있고, 더 물어야 할 책임이 있고, 그래서 더 풀어야 할 업이 있기 때문이다. 누가? 우리 모두가. 역사를 함께 한 공동체인 이 나라 전체가.

박경태 감독의 〈나와 부엉이〉(2003)부터 〈거미의 땅〉과 〈임신한 나무와 도깨비〉에 이르기까지 기지촌 위안부로 살아 온 현실의 자신으로 출연하고 있는 주인공 박인순은 마치 달마와도 같다. 부릅뜬 눈으로 뺏벌 이곳저곳을 오가는 인순은 꿈을 꾸지 않으려고 잠을 자지 않는다. 인순은 죽어서 새가 되고 싶다고 한다. 자신을 괴롭힌 사람들의 눈을 쪼기 위해서란다.

영화는 인순을 만나러 가서 '눈'으로 지은 업을 따라 간다. 자신이 몇 살인지, 진짜 이름은 무엇인지도 모르는 이 주인공은 사실 '박인순'이 아니라 '박인순'인 척 살아야만 했던 무명씨다. 첫 기억이 한국전쟁 시기에 아버지 지게에 실려 내다버려진 것이고, 그 다음 기억은 박정희가 대통령이 되던 무렵에 서울역에서 배를 곯으며 사람들에게 매 맞다가 짜장면을 사주는 낯선 여자를 따라 뺏벌에 온 것이고, 그때까지는 아무 이름이 없었단다. 그러다가 초경을 하는 나이가 되자 기지촌 포주였던 짜장면 사준 여자가 동네에서 일찍 죽은 진짜 '박인순'으로 신분증을 위조해주면서 그 이름으로 보건증을 발급받아 미군을 상대하는 위안부 인순으로 살게 된 것이다.

'야' '거기' '너'로 불리던 이름 없는 아이가 여성의 자태를 띠게 되자 일을 해야 했다. 남의 이름으로 거짓 가족관계 안에 들어가 미군을 상대하면 할수록 빚이 느는 세상에 사는 동안 수많은 임신을 했고, 수많은 임신 중절도 겪었다. 몹시도 고통스러울 때 위로해주던 미군과 결혼을 해서 미국에 간 적도 있고, 거기서 자식을 낳기도 했으나 한때의 위로보다 오래 지속된 폭력을 겪으며 그 동안 가지고 있었던 기억도 다 사라지고, 오직 가짜 이름의 고향인 '뺏벌'로 밖에 돌아갈 곳이 없어 자식도 기억도 버리고 기지촌으로 와서 살고 있단다.

이 영화는 합리적 언어로 인순의 이야기를 담으려다 실패한 곳에서 다시 시작해 뺏벌의 영가들을 거두러 온 저승차사들이 아무리 데려가려 해도 데려갈 수 없도록 동료였던 꽃분이(들)의 영가를 마주치는 이야기들을 거쳐 성불할 수 없는 꽃분이들, 이승에도 이름이 없으니 명부에도 이름이 없어 천도할 수 없는 영가들을 위로한다.

실패하게 되는 합리적 언어는 먼저 다큐멘터리로 시작된다. 조선이 망하고도 아직 외척 세도가 파평 윤씨의 무덤이 있는 동네 아래에 있는 수락산 어귀에 있는 마을 뺏벌. 거기에 사는 인순을 국가폭력 희생자의 사례로써 기지촌 여성 생애사 연구를 하는 교수가 찾아온다. 그러나 글도 모르고 기억도 많이 잃고 자신의 삶을 국가폭력의 피해자라고 인정하지 않는 인순의 내력은 생애사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실패한다.

교수를 따라왔던 작가는 실패한 구술 대신 인순이 그린 그림들을 남들이 관심 갖기 전 자신의 작품으로 만들 생각을 하고 다시 찾는다. 인순을 만나지 못하고 폐허가 된 미군 상대 클럽 자리들을 기웃대다 들어간 어메이징 클럽에서 작품 소재 투성이라며 신나게 사진을 찍어대던 작가는 꽃분이의 영가가 나타나자 파평 윤씨 무덤이 있는 산등성이로 허겁지겁 달아난다.

이렇게 외부에서 온 타자들의 '이야기 만들기'가 실패한 뺏벌에 꽃분이를 데리러 저승차사들이 나타나면서 영화는 남들의 기록하기인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인순과 꽃분이들의 내력을 보고 겪는 판타지로 바뀌게 된다.

낮에도 밤에도 잠들지 않고 부릅뜬 눈을 한 인순은 꽃분이를 데려가려는 저승차사를 직접 보기도 하고 이야기를 듣기도 하지만 아무런 두려움도 없다. 인순과 꽃분이들은 저승차사들을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 꽃분이들이 목을 매달았던 나무 아래로 데려가, 꽃분이들을 학대하고 살해했던 도깨비들에게로 이끈다. 우리들은 그 장면을 '눈'으로 본다. 마침내 우리는 가장 가혹하게 죽어간 꽃분이, '윤금이'의 모습을 보고야 만다.

이 꽃분이들을 제대로 천도하지 않으면 인순은 잠을 잘 수 없고, 저승차사들에게 그 영가들을 내주어서 잊혀지게 할 수도 없다. 복수는 판타지지만 희생은 현실이었다. 공식적인 국가폭력은 언어를 요구하지만 참된 애도는 책임과 처벌을 요구한다.

〈임신한 나무와 도깨비〉를 떠도는 이름 없는 영가들의 이야기를 옮기면서 다시금 이태원에서 죽어간 젊은 넋들의 영가들을 제대로 천도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한다. 그들은 '놀러 간 아무나'가 아니라 소중한 딸이고 아들이었다. 벗이고 희망이었다. 꿈이고 내일이었다. 함부로 '국가주도 애도'라는 이름으로 그 이야기를, 책임을 묻는 일을, 잘못한 업의 인연을 따지는 일을 막지 말지어다. 이곳이 정토는 못되더라도 생지옥이 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않은가?

〈영화평론가〉

비바미 신발은
우리 몸과 자연의 합일을 추구합니다
승복과 어울리는 색상과 디자인입니다.
신으면 자연과 지구를 발로, 온 몸으로 느낍니다.
발볼이 넓어 발가락과 발바닥의 기능을 살립니다.
걸으면서 명상하기 적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 판매 : vivame.co.kr ◈ 전화 : 02-922-6000



법인등록번호 284121-0003832
(사)해동불교 약사종
약사신앙으로 한국불교를 중흥시킬 구도자를 찾습니다.
1. 약사경을 소의 경전으로 종단 운영에 관심이 있으신 분
2. 약사신앙을 연구하며 공부하고자 하는 분
3. 약사여래 부처님을 모시고 계시는 분
4. 현시대에 약사신앙의 필연성을 인식하시는 분
5. 종단에 소속되어 보호받고자 하시는 분
현시대에 걸맞은 약사기도 수련법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사) 해동불교약사종 총무원장 원담 일광
종무소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잠곡로 16-1 전화 031)585-8064 팩스 031)584-8063
총무원장 010-8228-7908